



기초음악 이론 및 음악에 대한 이해 ⑤

기초음악 이론으로 들어보는 Pop 음악

+ 홍세린 삼아프로사운드 대리

- ① 음원의 BPM 찾기 및 BPM에 따른 음악 편집 Tip
- ② Pop(Motown)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듬의 이해
- ③ 기초음악 이론 - 조성 및 음계
- ④ 기초음악 이론 - 화성의 이해
- ⑤ 기초음악 이론으로 들어보는 Pop 음악

방송과기술 [Back to Basic Season II] 코너는 방송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 신입사원이나, 업무 전환된 방송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방송음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의 이론적 이해를 돕고자 [기초음악 이론 및 음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음악이라는 장르를 지면을 통해 100%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음향믹싱 및 PA 실무자 분들에게 음악적 이론 습득과 더불어 제작 현장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새롭게 음악의 기본을 복습해 본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 편집장주

"조금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위해 글을 도와준
두인보(타악기 연주자 및 프로듀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어느덧 Back to Basic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5개월 동안 우리는 음악의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알아보았다. 리듬에 관한 빠르기, 음표, 박자표, BPM 등과 조성 및 음계, 그리고 간단한 화성과 화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글을 이용하여 음악 이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힘들다. 하여 첫 회부터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설명한다는 것이 종종 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복잡하고 어려워진 점이 있어 양해를 구한다.

Back to Basic의 마지막 시간인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이론들을 가지고 유명한 팝송 몇 곡을 골라 같이 분석해보고자 한다. 말은 분석이지만 어려운 내용의 분석이 아닌, 우리가 앞서 함께 보았던 내용들을 대입하여 이 곡은 어떤 리듬을 사용하였고 박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코드는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연구해 보자는 취지로 준비하였다. 어려운 내용이 아닌 만큼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앞에 1회부터 4회를 다시 한 번 찾아보면서 이해를 하려 노력해보도록 하자.



Michael Jackson - Billie Jean

Michael Jackson, 특별히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명실공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이다. 1958년 8월 29일에 태어나 얼마 전인 2009년에 우리 곁을 떠난 Michael Jackson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최고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The Jackson 5로 1964년 가요계에 입문하여 성공을 거둔 후, 1971년부터 솔로 앨범을 내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Beat it, Thriller, Billie Jean 등의 곡을 가지고 그의 능력을 가감 없이 발휘하였고, 그 후에 Black or White 그리고 Scream 등의 곡으로 그는 Pop의 황태자라는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된다.

Billie Jean : 1982년에 발표된 Michael Jackson의 대표적인 앨범 Thriller에 실려있던 곡으로 Michael Jackson이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썼은 곡이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그의 음악적 파트너 Quincy Jones가 프로듀싱한 Billie Jean은 하마터면 앨범에 실리지 못할 뻔 한 곡으로, 앨범이 발매되기 직전까지 91번에 걸친 믹싱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그럼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을 파헤쳐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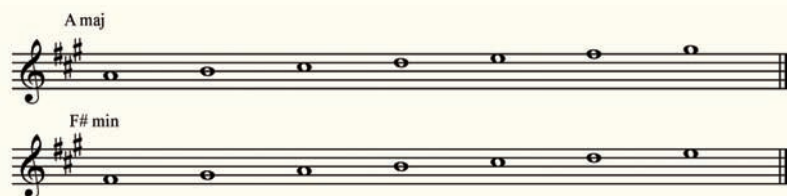
1. BPM : 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 BPM은 악보 왼쪽 상단에 117이라고 나와 있다. 기억을 잠시 더듬어 이야기해 보면 BPM은 Beats Per Minute, 즉 4분음표가 1분 동안 117번 연주된다는 뜻이다. 다들 알다시피, Billie Jean은 어느 정도 템포가 빠른 음악이다. 베이스의 인트로로 시작되는 이 음악은 첫 번째 소절이 나오기 전에 코러스들이 부르는 화성이 참으로 인상적인 곡이다.

2. 박자표 : Billie Jean은 4/4 박자의 음악이다. 현대 악보의 왼쪽을 보면 4/4라는 박자표 대신에 C라는 아이콘이 자리 잡고 있다. 이 C라는 아이콘은 Common Time(자주 사용되는 박자) 즉, 4/4 박자를 뜻한다.

3. 리듬: 이 곡의 리듬은 디스코도 될 수 있지만 Funk로 지칭하는 것이 맞을 듯하다. 한 마디 안에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강세가 있는데, 이 음악을 Funk로 지칭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는 Kick의 강세이다. 두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이어 나오는 Kick의 당김음(Syncopation)이 이 음악을 Funk로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4. 조표: 악보 왼쪽 상단을 보면 #이 3개가 붙어 있다. 다들 기억하리라 믿고 설명을 계속하겠다. #이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이다. 악보에서 보이다시피 #이 솔까지 붙어 있기에 이 조표의 이름은 가장조(A Major) 혹은 올림 바단조(F# Minor)이다.

5. 조성: 그럼 이 곡의 조성은 어떻게 될까? Major 일까? 혹은 Minor 일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음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물론 악보를 보면 악기 연주를 위한 코드가 마디 별로 나와 있어 Billie Jean이 Minor 조성의 음악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하지만 잠시 분석해 보면 가수가 부르는 멜로디나 혹은 낮은음 자리표의 구성이 대부분 F# Minor의 음계대로 연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악의 조(Key)는 F# Minor, 올림 바단조이다.

Hotel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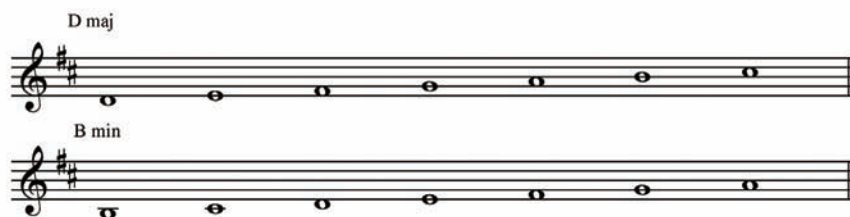
♩ = 74

Eagles - Hotel California

Eagles는 다른 밴드와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의 그룹으로 시작된 밴드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반주를 하는 세션밴드였다가, 1972년에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은 후부터 앨범을 발매하고 그들만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데뷔 해인 1972년에 발매한 음반인 Eagles와 Take It Easy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대중들의 머릿속에 Eagles를 각인시켰다. 활동 폭을 점차 넓려가던 중 The Best of My Love와 One of These Night가 대히트를 하였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록이라는 장르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Eagles의 이름을 항상 올려놓게 되었다. 아직까지 왕성하게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 Eagles는 얼마 전 한국에 내한하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Hotel California :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리스트에서 언제나 Eagles의 Hotel California를 볼 수 있다. 서정적이지만 악기 연주 및 싱어의 목소리가 굉장히 터프한 곡으로 같은 이름으로 1976년에 발표되었던 Eagles의 Hotel California 앨범에 들어있는 타이틀 곡이다. Don Felder, Glenn Frey, Don Henley의 작곡, 작사로 탄생되었고 BB King의 프로듀서로도 유명한 Bill Szymczyk의 프로듀싱으로 탄생한 곡이다. 그럼, 지금부터 Eagles의 Hotel California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1. BPM : Eagles의 명곡 Hotel California의 BPM은 74라고 악보 왼쪽 상단에 명시되어 있다. 1분에 74번의 4분음표가 연주되는 속도이고, 이 템포는 아주 느리다거나 빠르지 않은 Mid-tempo 정도로 부를 수 있겠다. 이 속도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걷는 속도를 비유한 Andante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일 초에 한 번씩 4분음표를 연주하면 1분 동안 얻는 속도는 BPM 60이다. 시계 침 속도보다 조금 빠른 정도라 생각하면 될 듯하다.
2. 박자표 : Hotel California 악보를 보면 또다시 4/4가 아닌 C라는 아이콘이 나와 있다.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악보 상에 나와 있는 박자표 C 아이콘은 Common Time(자주 사용되는 박자)을 뜻하며, 그것이 바로 4/4 박자이다.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콘이니 꼭 외워 놓기를 권장한다.
3. 리듬 : 이 곡의 리듬은 장르의 이름과 똑같은 록이다. 흔히 록을 장르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록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리듬이기도 하다. Hotel California의 리듬은 아주 전형적인 Classic Rock으로,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강세가 있다.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두 번째 박보다 네 번째 박에 미묘한 차이의 강세가 더 있다. Kick 드럼의 포인트는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으로 특히 유의할 점은 세 번째 박에 두 번의 Kick을 8분음표로 쪼개어 두 번 연주함으로써 Classic Rock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4. 조표 : 악보 왼쪽 상단을 보면 #이 2개가 붙어 있다. 독자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반복해보면 #이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다. 악보에서 보이다시피 #이 두 번째 음인 도까지 붙어 있기에 이 조표의 이름은 라장조(D Major) 혹은 올림 나단조(B Minor)이다.
5. 조성 : 그럼 이 곡의 조성은 어떻게 될까? Major 일까? 혹은 Minor 일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음계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Eagles의 명곡 Hotel California의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도록 하자. 가사가 붙어있는 악보의 제일 윗단 멜로디를 보면, 멜로디의 구성이 대부분 B Minor의 음계대로 연주되고 있다. 확인해보기 위해 악보에 명시되어있는 각 마디의 코드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곡이 대부분 마이너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악의 조(Key)는 B Minor, 나단조이다.

Come Together

♩=82
Cm

Here come old flat top He come grooving up slowly He got

Joo... Joo eye ball He one ho... ly rol ler he got hair down to his knee

got to be a jo ker He just do what he please

Cm

Beatles - Come Together

필자의 지인이 한 말이 떠오른다. 나중에 22세기 혹은 23세기가 되었을 때, 20세기의 음악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Beatles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이라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Beatles,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는 필자보다 Beatles에 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축구계의 악동, 우루과이의 수아레스가 주요 선수로 뛰고 있는 팀인 리버풀. 지금의 리버풀은 축구 도시로 유명하지만 원래 리버풀은 항구도시로서 별다른 이슈가 없는 도시였다. 하지만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악인 John Lennon과 Paul McCartney를 배출한 영국의 도시라 많은 음악가들에게는 선망의 도시이기도 하다. 1960년 결성된 Beatles는 이듬해인 1961년에 역사적인 첫 공연을 Cavern 클럽에서 시작하고, 이 클럽에서 2년 이상 연주를 하면서 자신들의 팬들을 끌어모았다. 1962년에 발표한 Love Me Do로 영국에서 그들의 음악을 인정받았고 British Invasion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EMI 레코드사의 길이 남을만한 다양한 히트곡들과 7번의 Grammy 어워드 수상이 그들의 업적을 증명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Beatles와 그들의 수많은 명곡들은 기억되고 또다시 재해석되어 불려진다.

Come Together : Beatles의 명곡 Come Together는 그들의 마지막 앨범인 Abbey Road에 실려있는 곡으로 John Lennon의 손에 의해 탄생된 작품이다. Abbey Road는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 명의 밴드멤버들이 녹음실 앞 횡단보도를 걷어가는 사진을 재킷으로 한 앨범으로, 록, 블루스,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모여 있는 Beatles의 명반 중 하나이다. Come Together는 1969년 7월에 녹음이 되고 같은 해 10월에 발표되어 Beatles의 앨범 중 제일 많은 판매를 기록한 앨범의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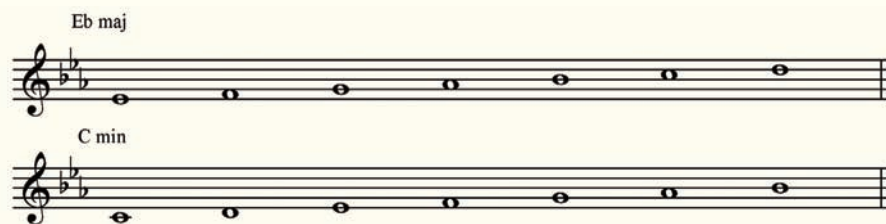
1. BPM : Come Together의 BPM은 82라고 악보 왼쪽 상단에 명시되어 있다. 1분에 82번의 4분음표가 연주되는 속도이고, 이 템포는 어느 정도 템포감이 있는 곳이지만 이 곡 또한 Mid-tempo라 부를 수 있겠다. 앞서 설명된 Hotel California보다 BPM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BPM 74와 BPM 82는 그 느낌의 차이가 분명하다. 이 글을 읽으면서 꼭 위의 두 음악을 비교해서 듣고 그 차이를 느껴보기 바란다. BPM 82는 Andante보다 조금 빠른 Andantino로 분류할 수 있다.

2. 박자표 : Come Together 역시 4/4가 아닌 C라는 아이콘으로 박자가 명시되어 있다. 앞에서 두 번이나 언급되었던 것이 또 한 번 나왔으니 정말 Common(자주) 사용되는 박자임이 틀림없다.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콘이니 꼭 외워 놓기를 권장한다.

3. 리듬 : 이 곡의 리듬 또한 마찬가지로 록이다. Hotel California와 같은 리듬패턴의 전형적인 Classic Rock으로,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강세가 있다. 또한 한 마디 안에 있는 두 번째 박보다 네 번째 박에 미묘한 차이의 강세가 더 있다. Kick 드럼의 포인트 세 번째 박에 두 번의 Kick을 8분음표로 쪼개어 두 번 연주함으로써 Classic Rock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다.

4. 조표 : 악보 왼쪽 상단을 보면 ♭이 3개가 붙어 있다. 아까와는 달리 ♭이 붙으니 ♭이 붙는 순서를 다시 한 번 기억해 보자. 물론 필자는 독자들이 전부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 다시 반복해 보자. ♭이 붙는 순서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이다. 이 순서는 #이 붙는 순서의 정반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악보를 들여다보면 이 세 번째 음인 라까지 붙어 있기에 이 조표의 이름은 내림 마장조(Eb Major) 혹은 다단조(C Minor)이다.

5. 조성 : 그럼 이 곡의 조성은 어떻게 될까? Major 일까? 혹은 Minor 일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음계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Come Together의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멜로디를 살펴보면, 멜로디의 구성이 대부분 C Minor의 음계대로 연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악보에 명시되어 있는 각 마디의 코드들을 확인해 보면 중간중간에 F Major 코드와 F Major 코드가 눈에 띄지만 첫 번째 마디와 한 구(phrase)의 끝이 C Minor로 끝나기 때문에 이 곡의 조는 C Minor, 다단조라 말할 수 있다. 이 곡의 후렴구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Come together, right now, over me라고 끝나는 부분이 살짝 Major 성의 음악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의 종결 구(phrase)들이 대부분 Minor로 끝을 맺어 전체적인 음악의 Key는 Minor, 단조라고 말한다.

Michael Bolton -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1953년 5월에 태어나 하드록과 헤비메탈을 주로 노래하고 곡을 만든 Michael Bolton은 1980년대에 들어와 그만의 허스키한 보이스로 소프트 록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Adult Contemporary라는 장르의 탄생과 동시에 1980년 중,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유명한 Richard Marx와 함께 Michael Bolton의 황금기를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1975년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 Michael Bolton은 총 17개 장의 정규앨범과 35개의 싱글을 발표하고 American 뮤직 어워드 및 음악계의 최고 권위인 Grammy 어워드에서 수상을 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이름과 음악을 널리 알렸다.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 When a man loves a woman과 함께 Michael Bolton의 대표적인 곡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이 곡은 원래 가수 Laura Branigan을 위해 1983년에 Michael Bolton과 Doug James에 의해 만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63

B♭ F/A

I could hardly believe it when I heard the news today I

E♭C E♭m/G♭ B♭F F/A♭ B♭D F/C

had to come and set it straight from you

B♭ F/A

They said you were leaving in some one's swept your heart a way from the

E♭C E♭m/G♭ B♭F C/E Fm4 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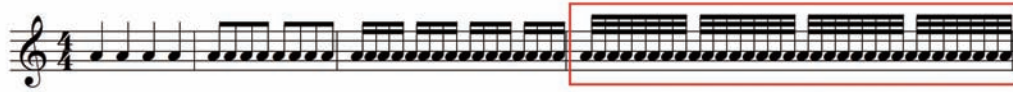
look up on your face, I see it's true

들어진 곡이다.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Laura Branigan이 이 곡으로 빌보드 1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지만, 1989년에 Michael Bolton에 의해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는 재탄생 되었다. 싱글 발매를 하자마자 이 곡은 빌보드에서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한다. Jack White의 프로듀싱으로 다시 태어난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는 쓰러져가는 Columbia 레이블을 다시 일으켰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어 냈다. 또한, 위의 곡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Pop 음악 리스트 중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곡이다.

1. BPM : 이번 호에서 알아볼 마지막 곡인 Michael Bolton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는 BPM이 63인 곡이다. 1분에 63번의 4분음표가 연주되는 속도이고, 이 템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계 침이 60번 돌리는 BPM 60과 거의 비슷한 곡이다. 그렇긴 하지만 BPM 60과 BPM 63의 템포감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 그 구분이 확실하다. 앞서 설명된 세 곡의 템포보다 많이 느리게 연주되는 곡으로 그 특유의 발라드 감성을 보여준다. BPM 63의 이 곡은 슬로우 템포의 전형적인 속도로 Adagio(천천히 혹은 느리게)로 분류할 수 있다.

2. 박자표 : 마지막 곡 또한 4/4가 아닌 C라는 아이콘으로 박자가 명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다른 음악들을 비교하고 알아보려 글을 쓰고 있었으나,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음악들을 선정하여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어서, 유명한 곡들로 추리다 보니 네 곡 전부다 4/4 박자의 음악을 채택하게 되었다.

3. 리듬 : 이 곡의 리듬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Rhythm & Blues(R&B)이다. 원래 R&B란 단어는 하나의 음악 장르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R&B 특유의 리듬 패턴과 당김음(Syncopation) 때문에 하나의 리듬 스타일로 지칭되기도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이 곡의 리듬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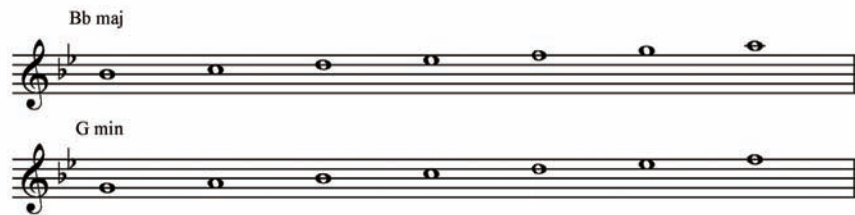


은 한 마디 안에 16분음표가 16개 들어간 형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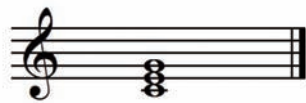
그림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의 리듬패턴, 즉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16비트 음악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어떤 악기는 보컬이 저 리듬형태로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를 부르지는 않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드럼의 Hi-hat이나 타악기 리듬에서 위와 같은 패턴의 리듬을 들어볼 수 있다.

4. 조표 : 이 곡의 왼쪽 상단을 보면 $\flat$ 이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복해 보는 의미로 $\flat$ 이 붙는 순서를 다시 열거하자면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와 같다. $\flat$ 이 두 번째 음인 미까지 붙어 있기에 이 조표의 이름은 내림 나장조(B $\flat$ Major) 혹은 사단조(G Minor)이다.

5. 조성 : 그럼 이 곡의 조성은 어떻게 될까? Major 일까? 혹은 Minor 일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음계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의 멜로디를 천천히 살펴보면, 멜로디의 구성이 대부분 B $\flat$ Major의 음계대로 연주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악보에 명시되어있는 각 마디의 코드들은 Minor 코드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듯하다. 한정된 원고량이 있어 이 곡의 악보를 전부 넣지는 못했지만, 후렴구를 살펴보면 종지 구(phrase)는 거의 대부분 Minor로 끝난다. 그럼 이 곡은 Major일까, Minor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곡은 B $\flat$ Major 곡이다. 물론 각 phrase의 종지가 Minor로 이루어져 있지만 반대로 각 phrase의 시작은 항상 Major이다. 그리고 멜로디와 코드를 같이 보면 Minor로 끝나는 코드일지라도, 그 마지막 Minor 코드에 마지막 음정은 항상 해당 코드의 분위기와 구성을 바꿔줄 수 있는 Major 소속의 음정이 오게 된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겠다.



그림에서 보이는 코드는 도-미-솔로 이루어진 C Major 코드이다. 이 코드와 비슷한 Minor 코드인 A Minor 코드를 생각해 보면 제일 위에 있던 솔 음을 없애고 제일 밑에 라 음정을 넣으면 라-도-미로 이루어진 A Minor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Minor 코드에

Major 성의 멜로디 음정을 넣으려면 A Minor 코드 제일 위에 솔 음정을 추가하여 A Minor 코드와 C Major 코드가 함께 공존하게 된다. 이 코드는 Minor의 느낌이 진하게 나던 A Minor에 새로운 느낌을 추가시켜 Major의 느낌이 살짝 나게끔 만드는데, 이와 같은 코드의 형태를 7(Seventh) 코드라고 말한다. A Minor 코드와 C Major의 결합은 A Minor 7이라 불리는데, 7 코드에 관한 것은 Back to Basic 시간에서는 과감히 배제하였으므로,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될 듯하다.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5회에 걸쳐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음악이론의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대한 재미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어 마지막 회이지만 마음이 그리 후련하지만은 않다. 9월호부터 진행될 Back to Basic의 내용들은 독자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걸쳐 배운 음악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달래본다. 🎵